

적적하게 드러선 보루라습
호로든 빛을 조차 말나 버리고

江邊에서 X를 생각하며

꽃이 늘든 달 신도 없어졌으니
大지를 적시는 이 눈물 잊지 해!!!
— 내 눈물 白沙를 닮고 —

부드러운 바람은 술술

바다 저편에서 부러 오고요

十五夜 밝은 달은

소리없이 우슬 우슬한다.

X X X X X

하늘가에 직은 별들은

神秘로이 속삭이 고요

물안배 매치인이 술은

반짝 반짝 微笑합니다.

X X X X X

바다 끝은 술넝 술넝 노래 부르고

물안은 반짝 반짝 우슬 우슬하고요

水晶비 하늘에 달 우슬 우슬전만

잊지 할인 지나의 마음서 러워다.

春 波

X X X X X

친구여! 님이여!

나는 이와 같치서 러하진만

너는 홀로 푸엿에 취하였는가

우슬 우슬 달이나 하고 오려 부나.

X X X X X

밝은 달은 고요히 술속에 떠러져

외엿은 술을 논리고 있으니

그대여 나와 함께 술속에 드러가

抱擁의香氣 새어나 잠드려봐?
二九五五〇九〇十四日

白 鷗

푸르고 맑은 물결

하늘이 강이인 듯

하얀 모래언덕

紅 流 洞

紅流青山 김촌곳에

바랑동에 지고드니

千佛은 白雲이요

公

三更 밝은 노두와

한 잠일 올제

보이는 것은

黃 性 敏

쓰다시 千里로다

여기서 갈매기 떼들

漁夫노래 조라네

박 가 는 중

牛頭는 萬整이라

이곳이 佛陀伽藍니

四弘誓願 發할수가

金 龍 鶴

벗님뿐이라

그님 손 꼭 잡고선

저나라 갔네